

이기는 삶

#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당신의 주위에 매사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행운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다. 행운이든 불행이든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삶을 높여 빠뜨리는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그 비판의 방식이나 수위를 조절할 줄 모른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말투에다가 험난과 조롱이 언어 습관에 배어 있다. 욕을 안 쓰면 말을 못 한다. 과격한 표현으로 분란을 일으키고도 뭐가 문제인 줄 파악하지 못한다. 기본 예의가 없기에 이들과 온전한 대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가

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서비스 직원 의 작은 실수조차 그냥 넘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흥분한다. 말꼬리 잡는 것이 습관이다.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 진상 짓을 하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이런 타입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러면서 손톱이나 손 모양 등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들고 늘어진다.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맞춤법을 지적하고 문맥을 읽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몰고 늘어진다. 모든 건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특정 부분만 잘라 자기 멋대로 오해하며 비난하길 즐기는 사람은 매우 치졸한 사람이다.

사고방식 자체가 항상 안 좋은 면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사람 또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뭐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문제점만 몰고 늘어진다. 결국,



전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미루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는 여지없이 남 탓을 한다. 창의력은 핑곗거리를 낼 때만 발휘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반성이 없다. 전혀 본인의 잘못을 모른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 엄격하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상해 보인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도 나의 삶이 관찰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근목자후 근주자적(近墨者黑 近朱者赤)이라 했다.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면 본인도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된다. 생산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탓만 하는 헛똑똑이들을 나에게서 털어내라. 씩은 감자 하나가 섬 감자를 씩히는 법이다.\*

##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의(義)와 죄(罪)”

죄라고 하는 것은 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의를 거스른다는 것은 의의 본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영생이다. 영생의 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을 거스르는 것은 전체가 죄가 된다. 그런고로 영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은 전체 마귀의 법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간다 극락 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 마귀 소리인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곧은 자세와 폐활량은 운동능력(요가)과 연결이 된다. 일조량이 많은 계절이다. 이에 따라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왕성할 때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4번 꾸준히 걷기와 실내에서 하는 요가 운동으로 곧은 척추, 어깨 유연성 강화, 상 하체 근력 강화, 내분비계 활성화, 폐활량 회복, 균형감각

등을 올려보자.

**동작①:** 선 자세로 양 다리를 어깨너비 두 배로 확장하고 오른쪽 발끝은 바깥을 향한다. 숨을 마시며 양팔을 옆으로 펼치고 내쉬는 숨에 왼손이 무릎 아래로 능력 따라 발목까지 내린다. 오른쪽 팔은 위로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동작②:** ①번 자세 후 숨을 마시며 오른쪽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며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밀어 손은 바닥에 댄다. 숨을 내쉬며 왼 팔을 위로 뻗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주의: 무릎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다.

**동작③:** ①번 자세 후 오른쪽 발끝은 바깥으로 두고 숨을 마시며 양팔을 퍼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어 숨을 내쉬며 무릎을 향해 가슴 머리 손으로 천천히 내린다 앞뒤의 무릎을 펴준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동작④:** 양 발을 모으고 바르게 서서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왼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로 놓고 숨을 마시며 양 팔을 옆으로 활짝 퍼준다. 바닥에 닿고 있는 다리 내전근에 힘을 준다. 시선은 전방 위로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 동해삼신(東海三神) 불사약(不死藥)은 정도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느니라

### 弓乙道歌 궁을도가

虛空蒼穹하공창궁바라보소  
甘露如雨강마르우인말인가  
太古始皇태고시황궁을꾸던  
不老草불로초와 不死藥불사약이  
無道大病무도대병걸린 者자들  
萬病回春만병회춘사키라고  
편만조야~닐때도  
弓乙外宮을와는 不求불구라네  
東海三神不死藥동해삼신불사약은  
三代積德之家外삼대적덕지가와는  
人力인력으로 不求불구라네  
至誠感天求지성감천구한다네

텅 비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소 감로가 비같이 내리니 웬말인가? 아주 오랜 옛날 진시황이 꿈에도 그리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무도대병(無道大病)걸린 자들(집승) 같이 타락한 인간을 회춘시키려고 밤낮으로 저 푸른 하늘이 팍 차도록 감로를 내릴 때도 궁을(弓乙=정도령) 외에는 구할 수 없대네. 동쪽 해우반도(동반도)의 삼신산(정도령)의 불사약은 삼대(三代)에 걸쳐 덕을 쌓은 집안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는 없고 지성감천(至誠感天)이라야 구한다네.

山魔海鬼산마해귀은장된다  
掀天勢魔은천세마버하려고  
數千年前定 수천년전 정히둔칼  
天聖利刀仔細천황이도자세알고  
利刀歌리도가를 먼저불러  
肉身滅魔육신멸마먼저하고  
塵海業障破今越今진해업장파헤칠레  
晨清龍坐誦眞經산청경좌송진경을  
不敎晝夜불사주야잊지말고  
洞洞洞靈心동동동촉영심하소

마귀는 산과 바다로 도망가서 숨어 버리느니라. 하늘을 들어 올릴 것 같은 큰 권세를 지닌 마귀를 베어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정해둔 용천검을 빼 드셨으니 하나님의 예리한 칼(천황리도天聖利刀)을 자세히 알아 예리한 칼 노래를 먼저 불러 육신 속의 모든 마귀를 먼저 멸한 후 티끌같이 덧없는 인생의 무수한 업장을 깨뜨리며 넘어가소.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꿰어앉아 진경을 외우며 밤낮없이 잊지 말고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살피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소.

三鳥翔鳴數聲삼조빈명삭삭성에  
昏聩長夜혼구장야벌어오니  
容天劍용천검놈하리고 멸마경을외우면서  
勝利大將軍승리대장후군되어  
不顧左右進退불고좌우전진하자  
佛道大昌此時불도대창차사세  
雙弓之理覺心쌍궁지리각심하소

조(鳥)지는 닭 유(酉)를 의미하므로 삼조(三鳥)는 삼유(三酉)이다. 경술년으로 조선이 망한 후 신유(辛酉) 계유(癸酉)을 유(乙酉)의 닭이 세 번 자자주 우는 가운데 어둡고 두려웠던 긴긴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날이 밝아 오니 용천검(容天劍)을 높이 들고 멸마경을 외우면서 승리 대장의 후군(後軍)이 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자.

미륵불의 불사영생(不死永生)의 무극대도(無極大道)가 크게 창성(昌盛)하는 이때는 쌍궁(雙弓) 즉 궁공의 이치를 깊이 마음에 깨달아야 하느니라. 경술년으로 조선이 망한 후 60년이 지난 신유(辛酉)년(1981년)에 천지 공사가 시작되어 계유(癸酉), 을유(乙酉)의 삼조(三鳥=三酉삼유) 즉 신유(1981년)부터 계유(1993년), 을유

(2005년)까지도 정도령의 진리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어두운 기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날이 서서히 밝아오니까 궁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하자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斥儒尙伏척유상불오년時代시대  
人日稱弟僧師日稱인왕칭제승사왕칭  
佛道佛道何佛道불도불도하불도  
弓弓之間眞仙眞公眞子眞仙眞佛을  
左右弓間彌勒佛좌우궁간미륵불이  
龍華三界出世용화삼계출세세에  
三位三聖合心삼위삼성합력하니  
四海之中登兄弟사해지내동형제라  
人人合力一心승인인합력일심합이면  
原子不如海印원자불여해인이라  
天恩之聽感格천은지정감격하니  
萬歲三唱만세삼창부르리라  
七十二才海印金尺칠십이재해인금척  
無窮造化天呼萬歲무궁조화천호만세

유교를 배척하고 궁공기간(弓弓之間)

## 코로나19 합심하여 이겨냅시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기필코 이겨냅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나를 이기는 길 먼저 부처가 되어라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귀한 시대이다. 좋은 친구는 목과 같아서 오래 사귀면 사귄수목 같이 그윽한 것 같다. 나는 친구를 참 좋아해서 같이 밤새며 얘기하고 같이 자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고교시절 단짝 친구였는데 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앞서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문학을 좋아해서 나도 문학을 좋아하고, 콜라를 좋아해서 나도 따라서 콜라를 좋아하는 등 그 친구를 은근히 모방했던 기억이 있다.

친구 따라 시나 소설 나부랭이를 읽었던 나는 운동주 선생의 서시(序詩)를 좋아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운동주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공무원이 되면 청백리처럼 살리라 다짐했고, 법관이 되면 사도 법관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좋아하던 여인에게 차이고,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앞뒤가 팍 막힌 시절에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의 인생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솟아났다. 나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의 영웅담은 내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 군 장교시절 학교를 세운 이야기, 강태 15명을 흠뻑으로 때려 눕힌 이야기,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필코 이겨낸 이야기 등등 무지하게 많다.

그런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려면 먼저 나는 영생의 희망을 갖게 해 주신 점을 듣고 싶다. 이 세상에 희망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은 영생의 희망인데 그것도 나 자신만의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 모두를 영생케 하겠다는 비전일 것이다.

이 세상 인류를 영생케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선생님: 자신이 먼저 부처가 되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영생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게 의로운 일 아닙니까?

선생님: 세상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는 게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남을 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살고 남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것이다. 내 말을 구해주시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구한 상태에서 남을 구해야 둘 다 산다는 말이다. 둘 다 죽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61)744-8007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戸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London : (0208)894-1075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